



김주영 | 푸른역사 편집부

책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은 지 꽤 되었건만, 지금도 대형서점에 나가보면 실로 엄청난 책의 바다 속에서 내가 만든 책을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3천 부' '5천 부' 예상 판매부수를 기늩해 볼 때는 1,2천 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자가 다 귀하고 고마운 것이다. 독자들은 왜 이 책을 구입하는 걸까? 이 책은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책은 어떤 것일까? 모든 편집자의 머릿속에 맴도는 의문일 것이다. 나 역시 종잡을 수 없는 대중의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편집자를 꿈꾸지만(!) 현실과 이상의 엄청난 괴리 속에서 허우적대기 일쑤이다.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것은,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편집자들이 많으리라는 내 나름의 전제하에, 누구보다 그들에게 바로 이 책《근대의 책읽기》를 권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서점에서,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활자로 인쇄된 책을 사서, 혼자 눈으로 읽는 책읽기 방식'이 이 땅에 처음 자리잡은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놀랄게도 당시 '책읽기'를 둘러싼 풍경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대중독자'들도 참고서와 수험서를 사서 읽고, 도서관에서 시험준비를 했으며 우편 주문으로 포르노 그래픽 책을 구입해서 읽었다. 이광수의 소설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학생과 노동자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적에 깊이 빠졌으며, 평양기생과 여류문사는 투르게네프 소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요리책, 아동서, 학습지, 처세관련 서적, 역사소설, 외국문학, 순수문학 등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부류의 서적이 그때부터 이미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인직의 《혈의 누》, 이광수의 《무정》, 염상섭의 《삼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만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다. 그런데 1920년대 그야말로 대형 베스트셀러였던 노자영의 《사랑의 불꽃》 같은 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반면, 업자들 사이에서 안 팔리기로 유명했다던 염상섭의 소설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다.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혹 만만치 않은 두께와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다소 딱딱한 부제에 부담을 느끼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은 책읽기에 대한 책이로되, 말 그대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조상님네들이나, 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책과 담장 높이 쌓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읽고 싶지만 뭘 읽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샐러리맨, 그리고 신상명세서 '취미'란에 '독서'라고 써 넣고는 약간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의 책읽기에 관한 책이니 말이다. 바로 편집자들이 늘 짝사랑해 마지않는 바로 그들의 책읽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책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책읽기의 역사를 제대로 다룬 책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으로 다가왔다. 종이 책의 위기가 운위되기 시작한 지 오래인데, 막상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그리고 그 기원이 되는 과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은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영화관과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안에 담겨 있는 이때,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하고, 또 나는 왜 책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영화의 탄생 이래 백년 이상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책이라는 수천 년 동안의 독재자가 반란군이 되어가는 변혁기를 숨쉬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이 책이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